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1. 14. (금요일)

제3회 HLMUN, 불법 마약 대응 논의 성료
- 다자간 논의와 협상 경험 쌓인 현장… 중국 대사단 대상 -

지난 11월 5일 수요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제3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HLMUN)가 열렸다. 올해 총회는 '불법 마약 생산지 지원과 공급망 차단을 통한 국제 보건 증진'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0개국 대사단이 참가해 각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의장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3회 한림모의유엔총회 (사진=hlmun press)

개회식의 문을 연 송건호 사무총장은 "HLMUN은 단순한 행사나 형식

적인 모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의미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한림모의유엔협회장은 “이번 총회의 의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보건 위기”라며 “대사단 여러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박준식 한림대학교 부총장, 제3회 HLMUN 의장단 및 심사 위원인 정용남·김재한·엄한진 교수가 참석해 대사단을 격려했으며, 표창원 융합과학수사학과 특임교수는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박준식 부총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를 읽는 시야를 넓히고, 협력과 조율의 가치를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회는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로 문을 열었다. 대표들은 자국의 관점에서 불법 마약 문제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설명하고, 국제 사회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부분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공식 회의에서는 생산지 지원, 공급망 차단, 다자간 협력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결의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중국 ▲최우수상 네덜란드 ▲우수상 호주·미얀마 ▲장려상 콜롬비아·인도 대사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진다정 중국 대사단(법학과·23)은 “협의체 결의안에서 정책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전 국민에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총회에서는 일부 계층만 해당한다는 점이 밝혀져 아쉬웠다”며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구 진출이 목표라 참여했는데, 유엔 총회의 운영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정치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적성을 발견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사무국이 회의 내내 함께하며 보여준 헌신이 인상 깊었다”며 “다음 회차 참가자들도 그 노력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회 HLMUN은 지난 6월부터 약 6개월간 준비를 거쳐 개최됐으며, 9월 대사단 오리엔테이션과 총 4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결의안이 마련됐다. 수상의 영광과 함께 막을 내린 이번 총회는 학생들에게 국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협상과 설득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는 값진 경험을 선사했다.

담당 부서 제3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안태현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맹민주, 김지민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39th_baekya@naver.com			
한림대학교 제3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